민주·국민의당 "탄핵안 뇌물죄 명시"… 새누리 동참 압박

야권 이르면 30일 탄핵안 발의

29일까지 양당 공동안 마련
박지원 "與동조의원 60명 넘어"
새누리 탈당 전·현직 의원 모임
개헌 논의와 빅딜 움직임 비판

야권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여권의 동참을 압박했다. 또 탄핵소추안 초안에 검찰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뇌물죄 부분을 명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자 29일까지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일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의총에서 '27일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전문가 토론회→29일 지도부 보고 후 국민의당 및 시민단체 등과 조율'이란 계획을 세웠다. 이르면 30일 탄핵안 발의, 내달 2일 표결을 전제로 한 일정이다.

특히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재벌기업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뇌물죄가 적시돼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삼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뇌물죄를 걸칠지, 아니면 별도 법률 위반 사례로 뇌물죄를 따로 적시할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당 탄핵준비단도 '28일 오전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오후나 오전 민주당 등 외부 의견 종합해 공통안 마련'이라는 일정을 마련했다. 또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과 공무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삼성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과의 커넥션, 정유라씨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의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나아가 전날 190만 촛불집회를 바탕으로 여당의 탄핵 동참을 압박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새누리당 내 양심세력 모두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들어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전선에 결집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친박(친박근혜)세력은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르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추진과 관련, "양심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협력으로 압도적 가결이 되도록 전화도 만남도 열심히 하겠다 다짐한다"며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탄핵 찬성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목표는 탄핵 가결"이라면서 "험난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일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이 60명이 넘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을 탈당한 전·현직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야 3당과 새누리당은 탄핵 관련된 날짜, 시기와 관련해 더이상 장난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탄핵이)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이나 9일의 탄핵 소추안 처리에 반대하며 개헌 논의와 빅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찾은 국민의당 "박근혜 퇴진"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천정배 전 공동대표, 소속 의원 등이 2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광주우체국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철수 "탄핵, 모든 정치적 이해득실 뛰어 넘어야"
천정배 "스스로 사고도 할 수 없는 한심한 대통령"

조선대·DJ센터서 각각 강연

국민의당 지도부 3인방이 27일 탄핵정국 속에 들끓는 광주 민심에 파고들며 세 결집을 시도했다.

당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강연 행보로 세 불리기에 나섰다.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원사격으로 힘을 실어줬다.

안 전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광주시당 초청 시국강연에서 "의원 200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탄핵을 시작한 만큼 200명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물밑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추진 과정에서는 여야 정파적 이해득실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좌고우면하는 것은 차가운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또 한 번 배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한다면 비폭력 시민혁명 열망이 결과로 이어진 세계사를 기록하는 커다란 날로 기억될 것이다"며 "거리에 모인 국민 열망은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바꾸자는 외침이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강연에 참석해 "새누리당에서 탄핵 동조 의원들이 계속 늘고 있다. 탄핵안은 확실히 가결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천 전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모임인 '자구구국(自救救國) 포럼' 운영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강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수구냉전, 시대착오적 세력과 지역패권주의 등 여러 기득권에 바탕을 둔 이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이전까지는 봤다"며 "(지금은) 놀랍게도 '국민 모지리'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구나, 최순실이 없으면 스스로 사고도 할 수도 없는 한심한 분이 세상을 맞았구나 싶다"고 비난했다. 이 행사에도 참석한 박 비대위원장은 "단군 이래 공민왕·신돈 스캔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라고 협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천정배·안철수, 안철수·천정배가 경쟁하고 안 전 대표가 중도보수, 천 전 대표가 개혁진보를 대표해 충돌하면 박지원이 조정하겠다"며 천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을 독려했다.

천 전 대표는 "능력이 있든 없든, (가진)능력만큼은 우리 앞에 있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는데 분골쇄신한다는 각오로 정치한다"고 화답했다.

안·천 전 대표와 박 비대위원장은 동료 의원들과 광주 충장로 우체국에서 한 데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함께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직 국회의장·총리 "박대통령 내년 4월까지 하야해야"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정·관계 원로들은 27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사퇴할 것을 선언하고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전했다.

원로들은 우선 당면한 국가위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빨리 사퇴 계획을 밝힌 뒤 차기 대선 일정·시국 수습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는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국가적 위기의 중대 요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보고 여야에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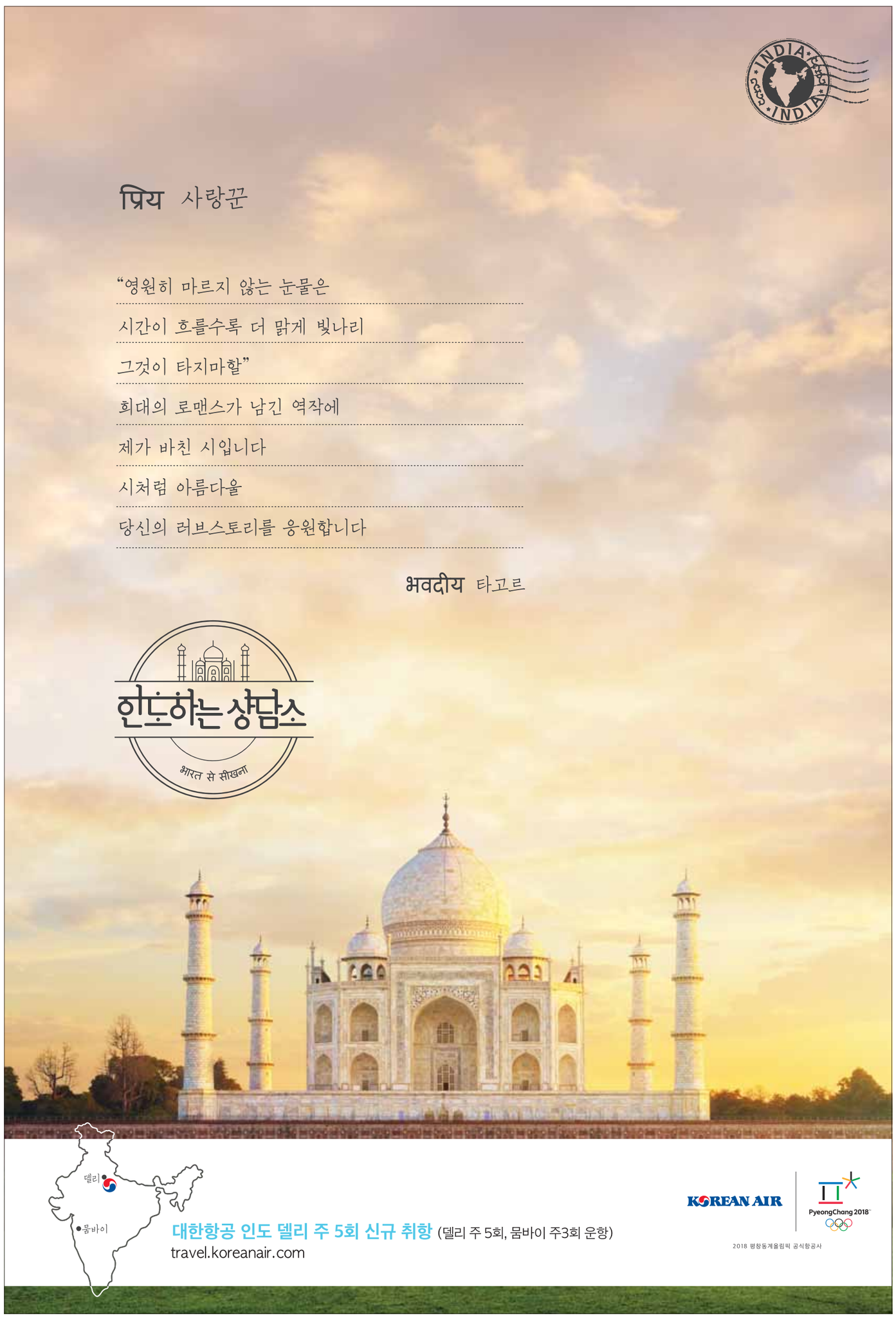
회동에는 박 전 의장을 비롯해 김수한·김형오·강창희·정의화·박희태·김원기·임채정 전 의장과 신경식 대한민국 헌정회장,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 김덕룡 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지지율 4%… 역대 최저치 또 경신

새누리, 국민의당에 밀려 3위 추락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인 4%로 떨어졌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남녀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4%만 긍정 평가했고, 9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갤럽이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시행한 이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동시에 새누리당 지지도 또한 창당 후 최저치(12%)를 경신하며 국민의당(16%)에도 뒤처져 3위로 추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34%)를 기록했다.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청년층에선 20대와 30대 모두 0%로 나타났고, 중·장년층 또한 40대 4%, 50대 6%, 60대 이상이 9%였다. 지역별로는 여권의 '전통적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서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3%에 그쳤다.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주까지 3주째 역대 최저치인 5%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주 1%포인트가 더 떨어졌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jkpark@